

시온 주보

제2425호 2022년 12월 11일(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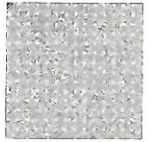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 송 |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 이사 35,1-6ㄴ,10

화답 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이사 35,4ㄴ 참조)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야고 5,7-10

복음환호송 |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 마태 11,2-11

영성체송 |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홍근표 바오로 신부 | 요셉나눔재단법인(요셉의원)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회학(社會學)에서 자선(慈善)의 의미는 너무나 미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신에게 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적당한 정도의 적선(積善)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 불편함을 없애는 정도의 희사(喜事)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학에서 말하는 복지(福祉)와는 너무도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대림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정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학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의 복지는 아닐지라도 이 추운 겨울에 어렵게 지내는 가난한 이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작게나마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붙여놓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이사 3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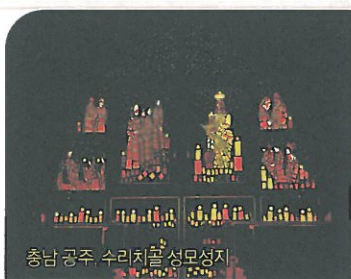
긴긴 터널 같은 팬데믹에 갇힌 지 벌써 3년,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아 맥이 풀린 우리들의 삶이 어디 하나 희망을 찾지 못하는 꺾인 무릎에 상처투성입니다. 직접적인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는 물론이고 백신을 맞은 분 중에도 죽음 내지는 심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도 주변에 제법 계십니다. 요양원에 모셨던 부모님과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이

별을 해야 했던 분들도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움은 늘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심각해지는 법입니다. 지난해 겨울 영등포 쪽방촌에서만 무려 2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겨울은 제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야만 할 텐데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마태 11, 2-11)

요셉의원의 선우경식 선생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료비가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다’. 그의 말대로 진료비가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각박해도 소문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들이 언제나 계십니다. 요셉의원에도 선우경식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 무료 진료 자원봉사의료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줄을 이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월평균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통해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기도와 자선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계심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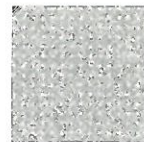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십니다.”(야고 5, 7, 9)

수리치골 성모성지 스테인드글라스에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흡사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삶을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충렬 살베스테르 | 전기 작가

참된 신앙인의 길을 향하여

참된 신앙인의 길, 견고한 신앙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 제 판단대로 사는 세상의 삶에 익숙하기에,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의 삶은 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싶어서, 10여 년 전쯤 하느님께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나름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부족했는지 하느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나같이 신앙이 약한 자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을 리가 없다고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창 밖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리는 행사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지면서, 어쩌면 저 현수막이 기도의 응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색이 인물 전기를 쓰는 작가라면서 그동안 문화, 예술인들의 전기만 썼지, 훌륭한 교회 인물에 관해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이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김수환 추기경님의 87년의 삶을 복원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신부가 되기 싫어 신학교에 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았던 소년 김수환이 어떻게 신부가 되었고, 주교, 대주교를 거쳐 추기경에 서임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와 사회의 '큰 어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셨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어렵פות이 알 수 있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인지를 알 수 있는 추기경님의 말씀도 만났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은퇴 후 혜화동 주교관에 머무시면서 자화상을 그리셨습니다. 겸손하신 분이셨기에 자화상 제목을 '바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품이 추기경님께서 졸업하시고 오랫동안 이사장으로 계셨던 동성중고등학교 백 주년 행사에 전시되자 기자들이 '바보야'라는 제목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내 모습이 바보같이 안 보여요? 제가 잘났으면 뭐 그리 잘났고, 크면 얼마나 크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나대고, 어디 가서 대접받길 바라는 게 바보지. 그러고 보면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겸손의 말씀이었지만 누구나 이렇게 살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괜찮은 삶인가요?”

“그저야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닌가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웃과 화목할 줄 알아야 해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알고 양심적으로 살아야지요. 그걸 실천하는 게 괜찮은 삶 아닌가요?”

저는 쉬운 듯하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이 말씀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42

사제 = 하느님과 그분 백성을 위해서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신부는 교회의 목자이고,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입니다. 성품성사는 하느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축성하는 성사로,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세 품계로 구분됩니다. 부제(副祭, 부사제)는 봉사를 위해 마련된 직책입니다. 부제는 주교와 신부를 도와 강론, 세례식과 장례식 주례, 성체 분배, 봉성체, 준성사 등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부제는 평생 부제직을 수행하는 종신 부제와 사제직 전 단계로서 부제직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 아직 종신 부제 제도는 없습니다.

신부는 주교의 협력자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7성사 중 세례, 성체, 고해, 병자, 혼인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 자격 등의 조건은 해당 교구의 주교가 정합니다. 교구 사제 지망자는 소속 본당 주임신부와 소속 교구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수도회 사제 지망자는 소속 수도회 장상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사제 지망자는 예비신학생 등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대학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수행합니다.

성직자가 생겨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임무와 권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중 성체성사를 제정하셨고,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하고 명하셨으며, 사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 성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안수와 기도를 통해 후계자들에게 사제와 목자의 임무를 위임하였습니다.(사도 13,1-3; 14,23; 1티모 4,14; 5,22 참조) 예수님께서 제정

하신 사제와 목자의 직무는 성품성사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됩니다.

성품성사 중 최고 단계는 사도들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주교품입니다. 성사란 하느님의 은총 자체이며 은총 받는 방법인데, 특히 7성사는 예수님의 현존을 ‘지금 여기에’ 드러내는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성사입니다. 하느님의 성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구원 은총을 이 땅에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오직 주교만이 7성사 모두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집전할 수 있기에, 주교품을 ‘충만한 성품성사’(교회헌장, 21항)라 부릅니다. 주교는 교구의 사목과 성사를 책임지기에, 교회에는 반드시 주교가 있어야 하고, 신부들은 주교의 사목에 협조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사제란 누구이고, 무엇하는 사람인가? 다양한 답변과 해석이 있지만, 제 마음에 드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사제는 하느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기에, 하느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제는 하느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을 위해 누군가를 부르시어, 사제로 이끌어 주시고, 부르심 받은 사제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사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1코린 9,22) 되는 사람입니다.



충실하고 겁쟁이였던 베드로 사도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MBTI 같은 성격유형 검사가 유행입니다. 이 결과를 맹목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간 자신과 타인의 성격이나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격검사나 분류는 사실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9가지의 성격 유형 분류를 하는 에니어그램의 경우 기원전 바빌론과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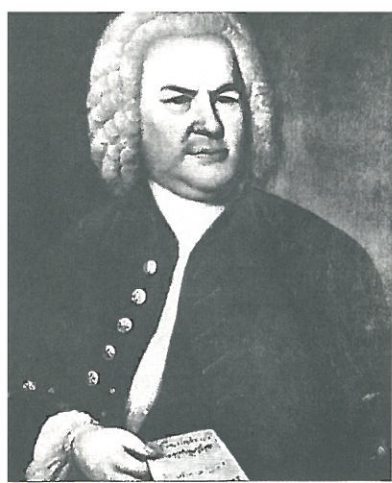
에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을 9가지의 성격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에니어그램을 적용해보면 대략 6번 유형 '충실한 사람'에 속할 것이라 추측됩니다.

베드로가 속한 충실한 사람 유형의 인물들은 친구나 자기가 믿는 신념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고, 다른 어떤 유형들보다도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강한 힘은 자신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강하게 싸우면서 성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반면 내면에서는 자신의 지향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히 수제자로 인정받았을 때 그에게서 상당한 자신감과 책임감이 솟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였지만 야단도 많이 맞습니다.(마르 8,33) 베드로같이 직

진하는 충실한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때로는 무모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을 때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물 위를 걷다 풍랑에 질겁하여 물속에 빠지고 모양도(?) 빠지고 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용감한 행동은 사실은 그의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도 멀리서 따라가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스승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마르 14,66-72) 이렇게 충실한 유형의 사람이 위기를 맞을 때는 거짓과 기만의 말과 행동을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의 성격유형도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부족함이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1685-1750)
사진 출처: 음악의 역사(음악사 대도감)

음악칼럼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명하는 마리아의 노래, 바흐 ‘마니피캇(Magnificat)’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세 번째 대림초에 불을 밝히며 예수님 탄생을 둘러싼 기록하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전언을 듣고, 서둘러 늙은 나이임에도 임신한 한 사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둘 사이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께 받은 은총의 공감대가 은밀하게 형성됐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마리아를 맞은 엘리사벳은 태중의 아들(세례자 요한)과 함께 기뻐하며 마리아를 향해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이라고 외치죠. 이에 마리아는 찬미로 응답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루카 1,46-55)입니다. 라틴어로는 ‘마니피캇 아니마(Magnificat anima)···’로 시작하며, 성무일도의 저녁기도에서 늘 낭송되는 송가(頌歌)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
이로다··· (중략) ...당신 팔의 큰 힘을 펼쳐 보이시어 / 마
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
에서 내치시고 / 미천한 이를 끌어 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
셨도다··· (후략)”

‘마니피캇’은 르네상스 시대의 몬테베르디(C. Monteverdi, 1567-1643, 이탈리아)로부터 현대의 아르보 패르트(A. Pärt, 1935- , 에스토니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곡가들이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음악의 신학자라 할 바흐가 빠질 리 없지요. 바흐(J.S.Bach, 1685-1750, 독일)는 서른여덟 살인 1723년 5월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

스교회의 칸토르(cantor, 음악 감독)에 취임하자 새로운 의욕으로 작곡에 임합니다. 마니피캇도 그 일환으로 작곡했습니다. 성 토마스교회는 루터파 교회로 독일어 예배가 일반적이지만, 성탄, 부활 등 대축일에는 라틴어 예배가 허락됐기에 바흐는 그 해 7월 2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지금은 5월 31일)’ 연주를 위해 이 마니피캇을 작곡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카복음서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를 가사로 하고 마지막에 영광송을 붙여서 12악장으로 만들었지요. 내림 마(B flat)장조로, 다섯 개 성악 파트(소프라노 2, 알토, 테너, 베이스)와 바로크 오케스트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 있다 보니 성탄 무렵에도 연주될 수 있도록 성탄에 맞는 내용의 합창과 중창곡을 추가합니다. 방문 축일에는 12악장으로 연주하다가 성탄절에는 네 악장이 추가된 16악장짜리 곡으로 연주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트럼펫 파트의 원활한 연주를 위해 조성을 라(D)장조로 수정하는데, 이 판본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연주되는 바흐의 <마니피캇, 바흐작품번호(BWV.) 243>입니다. 바흐 음악의 경건함과 아름다움이 고루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마니피캇)’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순명하는 마리아의 모습,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마음, 시선과 손길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마니피캇> 내림 마장조, BWV. 243a (성탄절 버전)
(2003년 라이프치히 바흐 페스티벌, 성 토마스교회 공연 실황 / 지휘: 톤 코프만)

성당, 찾지 않는 자를 찾는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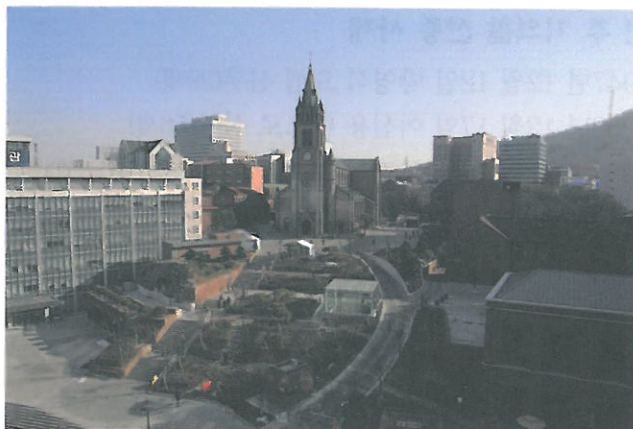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유럽에는 오래된 성당이 관광 명소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만큼 성당이 이루어내는 풍경 전체가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당도 동네의 사랑받는 풍경이 되어 있을까요? 야곱이 하느님의 집을 세우고 그 고장의 이름인 루즈를 베텔로 바꾸었듯이, 성당은 대지 안에 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 지역의 성격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성격을 바꾸는 힘은 성당이 폐쇄적이지 않고 들어오기 힘들지 않으며,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사회에 대해 열린 성당입니다. 신자가 아니더라도 미사가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오고 싶은 성당, 거룩한 공간을 찾아 아직 자기도 모르는 초월자를 향해 마주하고 싶은 성당, 이런 성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톨릭적입니다.

건축가 루이스 칸은 성당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성당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간, 성당 건물 가까이에 있지만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위한 공간.” 사실 많은 사람이 매일 성당 옆을 지나 어딘가로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성당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 중에는 성당 건물을 지나다니며 뭔가를 체험하는 이들이 있고, 성당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계단에 앉아서 앞에 있는 마당을 바라보며 누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성당 건물이 좋아서 벽면을 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당은 ‘전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며, ‘가까이에 있지만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명동대성당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까이에 있지만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들’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과 ‘전혀 성당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당은 특권층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이가 성당을 드나들 권리가 있다. ... 그리스도교 성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나이와 성별, 사회적 조건이나 지위의 구별이 없다. 심지어 악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은 당연히 큰 자와 작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온전히 품는 성당의 헤아릴 수 없는 넓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성당의 헤아릴 수 없는 넓음’이란 건축 공간이 넓고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온전히 품는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문의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이사 65.1) 성당은 어떤 건축인가?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공간으로 부르는 건축입니다.

오늘(12월 11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1984년부터 매년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지내기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우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자선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2월 12일 방영석 요셉 신부(29세)
- 1953년 12월 17일 이선용 바오로 신부(56세)
- 1994년 12월 14일 구전희 바르톨로메오 신부(73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
인간 발전에 헌신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이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기도합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한국 교회 종합의견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전문은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https://synod.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2021) 발행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 수는 5,938,045명으로 인구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당 수는 1,779개이며 성직자 수는 총 5,62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도자 수는 총 11,790명으로 남자수도자 1,625명, 여자수도자 10,16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https://cbck.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구장알림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6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2023년 3월3일~11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이주형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레사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장천석 개인전 ‘골목길시네마전’: 1, 2 전시실
전시일정: 12월14일(수)~26일(월)
윤재희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14일(수)~19일(월)

‘슬픔 속 희망찾기’ 12월 유가족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2월17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서울대교구 영성센터 경당(구 계성여고) /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023년도 총구역장 연수

대상: 남성총구역장, 여성총구역장
때, 곳: 2023년 1월7일(토) 11시~15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 회비: 1인 2만원(12월29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 수업-내가 모르는 나를 만나다

때, 곳: 12월12일~2023년 3월13일 매주(월) 20시~21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2023 가톨릭중등교육자 피정

대상: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교사, 교직원(가톨릭 신자)
때: 2023년 1월16일(월)~18일(수) 2박3일
곳: 성 바오로 피정의 집(시흥)
인원: 12월1일부터 선착순 40명 접수
문의(접수): 02)566-5456 학교사목부 사무실

2023년도 전기 ‘인재양성기금’ 수혜자 공모

공모부문: 대학원 학비 장학금 지원, 학위논문 작성비 지원, 국내·외 단기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 홈페이지(www.forlife.or.kr) 참조
접수기간: 12월31일까지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 접수(마감당일 우편소인 유효)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3년 상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자격증 과정 모집

가톨릭교회 인준의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2023년 1월9일(월)~27일(금) / 2023년 3월 개강
대상: 교회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가톨릭 교회 인준의 교회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자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제45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15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12월26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연희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48차 미사 12월1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함흥교구 북청 본당, 성진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송년 미사 / 문의: 02)727-2415
때, 곳: 12월16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모임

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미사·강의: 최재영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월 셋째주(금) 12월16일 13시~16시, 길음동성당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023년 1월6일(금)~14일(토),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형성) / 문의: 010-3340-0201

화요기도 피정(파티마평화의성당)

때: 매주(화) 10시~14시(미사) / 중식 제공
 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 / 문의: 031-952-6324

토아을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어능 청소년 성지 겨울 프로그램

지도: 박상호 신부 / 문의(접수): 031-636-4061
 청년 찬양 피정: 68기 2023년 2월25일~26일

대림 속의 성모님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강의·미사: 리백진 신부 / 문의: 010-2724-4819
 때, 곳: 12월19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 205호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 / 문의: 010-7197-1390

때: 12월28일(수) 19시30분 / 대상: 미혼 남녀 청년
 곳: 착한목자수녀회(주최, 전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성모신심 피정(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강사: 방종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미사와 강의
 때, 곳: 12월12일(월)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
 관 7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2월16일~19일·2023년 1월6일~9일·1월27
 일~30일·2월3일~6일·2월24일~27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집단 심리상담 피정	12월19일	명상의 집
개인 피정·위탁 피정	별도 문의	(우이동)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

연말연시 피정	12월30일~2023년 1월2일(눈꽃산행)
눈꽃 산행	1월5일~7일, 1월27일~29일, 2월4일~6일, 2월 12일~14일, 2월18일~21일, 2월24일~26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0차	12월30일(금)~2023년 1월7일(토)	문의:
제111차	1월20일(금)~28일(토)	061)373-3001,
제112차	2월10일(금)~18일(토)	010-3540-9001

1박2일 무료 치유 피정(청주교구 성령새싹봉사회)

때, 곳: 2023년 1월6일(금) 18시~7일(토) 15시(파견 미
 사), 청주교구 초청성령회관 / 버스운행: 17시 조치원
 역 앞 신한은행·17시20분 청주고속터미널 앞(다이소)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가정선교회 2023년 1월 행사

찬양과 회복피정 / 문의: 010-6281-8626, 02)777-
 1773 대표(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때, 곳: 2023년 1월14일(토) 12시50분~17시, 가톨
 릭회관 7층 강당 / 찬양미사: 한철호 신부
 찬미: 메타노이아(김정식·송봉섭), 손현희, 박설희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때: 12월23일(금) 16시30분~25일(일) 13시30분
 곳: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주최)
 회비: 25만원 /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계)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제주 성 이시들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12월31일~2023년 1월2일(한라산 눈꽃 산행)·1월7
 일~9일·1월13일~15일·1월28일~30일·2월3일~5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수제 묵주 수강생 모집(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초보자 수요일반 14시·토요일 오후반 14
 시,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재: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 문의: 043)260-5076

때, 곳: 2023년 1월6일~8일(2박3일), 양업고등학교
 접수: 12월26일(월) 오전 10시부터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 회비: 15만원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11월14일(월)~2023년 2월10일(금)
 우편접수 가능 / 문의: 02)745-8339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때: 2023년 1월부터 1년간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대면	히브리어 (수) 10시~12시
Zoom	히브리어·회람어 (수) 19시30분~21시30분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국악성가 무료강좌	2023년 2월 매주(수) 14시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용	2023년 2월 매주(금) 15시	
국악성가 반주장구	초급 매주(목) 13시30분 중급 매주(목) 15시30분	
벨칸토 성악 교실	성가대 초보자 환영 / 010-2252-2974 강신옥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
 영상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2023년 1월31일까지 접수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학교 밖 청소년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검정고시, 수능 등 학업 지원과 보컬, 사
 진, 기타, 필라테스, 영어대화, 독서토론 등 문
 화 수업과 컴활, 포토샵 등 자격증 수업 제공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문화공간JU역촌동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 이태리어·스페인어 강좌

2023년 1월~2월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이태리어 1월3일·스페인어 1월4일(8주 과
 정, 총 30시간) /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입문~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여행이나 순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환영
 회비: 32만원 / 문의: 02)705-8718(http://scec.sogang.ac.kr)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MBSR)

내용: 다양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
 를 경험할 때 자신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요가, 온몸스캔, 정좌명
 상, 걷기명상 등에 대해 배움 / 인원: 10명~15명
 강사: MBSR 지도자·심리학 박사 / 회비: 40만 원
 때: 2023년 1월10일 개강, 매주(화) 18시30분~21시(8회)
 문의(접수):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

곳: 지혜의 샘(부천시 송내동 366-5)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얼수, 쉬운 맥성경 갈무리	오전·오후 2 강의 (월) 구역, (수) 신학
쉬운 회람어 (신학) 특강	12월14일부터 매주(수) 19시30분 ~22시(12회) / 강의: 서한석 신부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접수: 2023년 1월17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례 3년 넘은 전진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2023년 1월 개강)

각6주 과정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영성적 접근	매주(수) 동영상 링크 발송	김정택 신부
육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매주(수) 동영상 링크 발송	유성모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매주(목) 동영상 링크 발송	전주희 수사
육화의 영성-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매주(금) 동영상 링크 발송	손우배 신부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다함께 성가들'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템나눔악원(주최, 신촌)

선교아카데미 제12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95만원(식대 포함)
때, 곳: 2023년 3월2일~9월27일 매주(목), 한국의방선교회(주최)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모집

2023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견진 받은 16세 이상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02)793-2070 곤벤투알, 010-7261-8233 카푸친, 010-4171-0898 청년회(만 35세 미만)

미사

한국희망재단 후원회 송년미사 / 문의: 02)365-4673
때, 곳: 12월21일(수)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15일(목) 12시, 가톨릭회관 3층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22
때, 곳: 12월12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들꽃마을 서울 영성강의 및 미사 종료 안내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들꽃마을에 많은 사랑과 기도를 청합니다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12월26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성시간, 묵주기도, 미사 / 접수 필수
때, 곳: 12월16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 102호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인사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개포동성당 첼로 오케스트라 연주회 / 문의: 02)515-5123
때, 곳: 12월17일(토)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불노·강박) 종합심리검사

미혼모의 따뜻한 보금자리 인천자모원

생명을 소중히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혼모의 출산, 건강회복, 자립지원, 무상제공
입소문의: 032)772-0071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교육 및 피정

청소년·청년·예비·성인 위대 및 자체 교육·
피정 / 문의(접수): 032)465-0835
참목·대월 기도 피정: 12월23일~25일·2023년 2월3일~5일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제24회 정기연주회

A Ceremony of Carols 캐롤 제전
때: 12월14일(수) 오후 8시 / 문의: 02)338-7831
곳: 서울대교구 개포동성당 대성전 / 티켓: 전석 무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영적 자유와 사랑을 위한 강의와 훈련: 2023년 1월5일~2월23일 매주(목) 10시~13시 / 회비: 25만원
강사: 전원 신부(영성상담) / 문의: 02)726-0700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 상담	심리, 가족 갈등 / 문의: 02)990-9360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 문의: 010-9146-7654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여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룸반회, 심리학박사)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문제, 우울감, 불안감, 공황장애, ADHD 자기이해, 타인이해, 관계이해를 위한 성격검사
교육: 카페(cafe.daum.net/caritas501) 참조

직원모집

가톨릭교리신학원 직원 모집

모집부서: 총무과(엑셀활용자 우대)
서류: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자기소개서
이메일(ccig@catholic.or.kr) 접수 / 문의: 02)747-8501(내선 2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일반 사무행정 계약직 1명(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본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개별 연락)
12월18일까지 이메일(vitavia_recruit@naver.com) 접수

신정3동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2060-8051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 받은(또는 받을 예정) 성실하고 건강하신 분
업무: 미화(청소), 시설관리 기타 방호 업무(주 40시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타 교구 신자는 주임신부님 추천서로 대체) / 채용시까지 이메일(sj3j99@seoul.catholic.kr) 및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신정3동성당 사무실)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CA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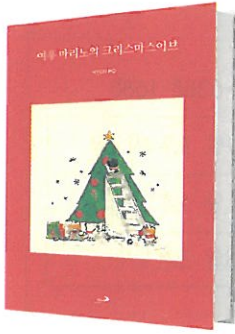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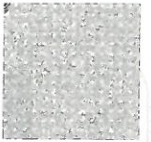
분야: 연구직원(육아휴직 대체자) 1명
업무: 인성교육 교재연구, 강의 / 대상: 견진 성사 받은 대졸자로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우대
근무: 2023년 1월1일~12월31일 / 자세한 내용은 학교사목부 홈페이지(www.kyccs.or.kr/ca)에서 확인 바랍니다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자 추천서, 교적 사본
11월26일(토)~12월19일(월) 17시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12월20일(화) / 면접: 12월22일(목)
문의: 02)553-7320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사회복지사	주 40시간
남녀 요양보호사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	010-2140-7414
미리내 성 요셉 애덕 수녀회	12월17일(토) 14시	경리단길	010-5639-8071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17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상의 후 결정	서울 분원(보문로 27길 20)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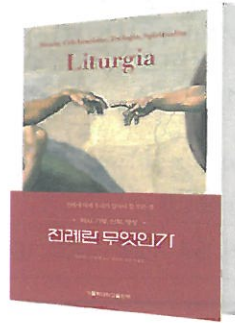


신간

여우 마리노의 크리스마스이브

HYUNHO 글·그림
성바오로출판사 | 48쪽 | 1만6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사랑스러운 꼬마 여우 마리노의 크리스마스이브 이야기. 여우 마리노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 학교 기숙사에서는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 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두가 바쁘다. 마당에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한다.



신간

전례란 무엇인가

마티아스 아우제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20쪽 | 2만4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전례에 관한 모든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기본 개념에서부터 전례의 역사, 전례 거행의 다양한 형태들, 전례 행위의 신학적 의미와 나아가 영성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깊고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전례에 보다 의식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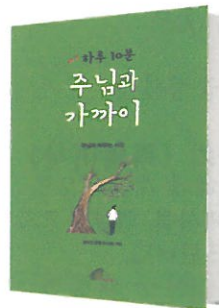


신간

대림 달력

성바오로말수도회 지음
바오로달 | 6쪽 | 4천5백원
문의: 02)944-0944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대림 1주부터 성탄 대축일까지 하느님과 지구,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도록 매일 미션을 준다. 달력에서 은박으로 가려진 부분을 동전으로 긁으면 매일 실천할 미션이 나온다. (대림 제1주: 자기 사랑 실천, 대림 제2주: 이웃 사랑 실천, 대림 제3주: 지구 사랑 실천, 대림 제4주: 주님 사랑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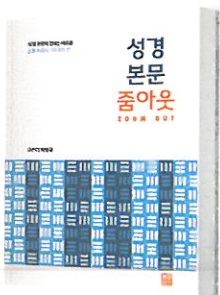


신간

하루 10분 주님과 가까이

성바오로말수도회 지음
바오로달 | 72쪽 | 6천원
문의: 02)944-0944

바쁜 일상 중에도 하루 10분을 마련하여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날의 기도 주제에 따라 마음을 준비하도록 초대하고, 성호경, 호흡기도, 성령 초대, 말씀에 머무르기, 주님과 대화하기, 주님께 맡겨드리기 순서로 기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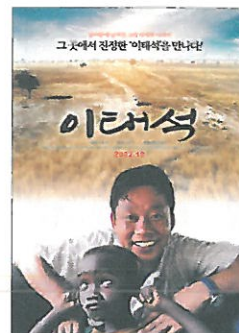


신간

성경 본문 줌아웃 공관 복음서, 사도행전 편

박병규 지음
생활성서사 | 200쪽 | 1만4천원
문의: 02)945-5987

성경 이야기의 흐름, 변화, 짜임새 등을 성경 원어와 함께 살펴 읽어, 성경의 세계로 신선한 여행을 하게 하는 책이다. 성경 구절에 숨은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이야기로 전하려고 했던 가르침을 하나하나 풀어 주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살아 내도록 이끌어 준다.



영화

이태석

문의: 070-4191-0050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 1명 2천원 할인(전국 개봉
극장)

한국의 '돈 보스코' 고(故) 이태석 신부님을 주제로 한 영화 <이태석>이 12월 29일(목)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울지마 톤즈> 이후 아프리카 남수단에 남겨진 이태석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깨우치는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다.

제2258(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안락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오늘 24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례식 : 12월 18일 (주일) 11시 미사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5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대림 기간 중 매 미사 전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디가 만드는 주님의 잔치 (특별미사)

반디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든 전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새롭지만 편안한 특별미사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2월 18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12월 17일(토) 15시 초등부미사는 없습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12월 20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일시	미사 시간
성탄 미사	12/24(토)	오전 6시 (평일미사) 오후 8시 (성탄 밤 미사) -대성전, 소성전
	12/25(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주일학교통합미사) 오후 6시

◎ 여성구반장 회합

일시 : 12월 11일(주일) 12시 / 소성전

◎ 군입대 자녀 성탄선물은 12월 11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남성을드레아

일시 : 12월 18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을드레아

일시 : 12월 20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병자영성체 : 12월 23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주님의 성찬에 함께 할 전례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청년20 예그리나 단장 (010-6339-6324)

청년30 프리모 단장 (010-9526-3217)

◎ 12월 3일 견진성사 개인사건

ID : yeonhui6414@nate.com / 비밀번호 : 12ab12

* 내매일함 견진성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건회(60대) 송년모임

일시 : 12월 22일(목) 오후 7시 / 201호

* 형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박병근 세례자요한 (010-8293-8666)

정원근 다니엘 (010-5227-9379)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평일 06시, 10시 미사

문의 : 아네스 대표 (010-4538-5665)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를 판매합니다.

일시 : 12월 24일(토) 오후 3시~25일(주일)

가격 : 떡국떡 10,000원 / 1.8kg

만두(김치, 고기) 14,000원

◎ 오늘은 자선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2. 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09	876 (41.5%)	839 (39.8%)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후
2022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례회 감사헌금

고 송진임 안나 상가이십만원

고 박익수 베드로 상가일십만원

고 김광수 베드로 상가일십만원

◎ 감사헌금 (11월 28일~12월 4일)

위풍환일십만원 전홍선이십만원

익 명일십만원 허석행일십만원

현화회일십만원 강경탁오십만원

박희호오만원 노덕연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대림 제2주일)

교무금20,495,000원

주일헌금6,629,500원

입당	95	봉헌	511, 212	성체	502, 177	파견	93
----	----	----	----------	----	----------	----	----



주님 저희를 구원 하려 오 소 - 서